

『鍼灸大成』醫案 중 痢疾, 癘疾 등 10案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韓方神經精神科學教室²

權五赫¹ · 趙學俊¹ * · 李在嫻²

A study on middle 10 medical records in 『Chingudaeseong(鍼灸大成)』

Kwon Oh-hyeok¹ · Jo Hak-jun¹ * · Lee Jae-hyok²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²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We have known that 『Chingudaeseong(鍼灸大成)』 had been written by Yanggyeju(楊繼洲) in Ming (明) dynasty. And it had been the only text book of acupuncture & moxibustion for 300 years. This book is composed of 10 chapters dealing almost all the medical theories of that times. This book is so enormous that it is hard to understand essential ideas of author.

The reading medical records is one of the best way to develop one's abilities of curing a disease without clinical practice. so we can't help dealing with medical records, because it is one of important method of understanding Oriental Medicine.

O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objective method on understanding medical records in 『Chingudaeseong(鍼灸大成)』.

Key Words : Chingudaeseong(鍼灸大成), Yanggyeju(楊繼洲), Medical records

I. 緒論

『鍼灸大成』은 鍼灸理論, 治療와 經絡, 俞穴 등에 관하여 明代 이전 鍼灸學의 주요 성과를 총괄하여 이전의 學術을 後代에 전달한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 후 300여 년간 鍼灸學界의 유일한 專門書籍이라고¹⁾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鍼灸大成』이 전래된 이후로 鍼灸 臨床에 상용하였지만 우리나라의 由博返約의 경향과 醫學, 특히 鍼灸學을 輕視한 풍토로 인해 『鍼灸大成』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그대로 임상 시술로서만 활용하거나 잘 요약하는 데 불과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鍼灸大成』에 대한 연구는 맹의 ‘鍼灸大成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와 이 등의 ‘『針灸大成·四策』의 翻譯과 分析을 통한 楊繼洲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가 있고, 李月桂가 『鍼灸大成』의 原文을 懸吐·解釋·校正을 한 것은 있고, 권 등이 『鍼灸大成』醫案 중 上10案에 대해 研究를 한 바가 있다.

* 교신저자 :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Fax: 043-649-1702.
E-mail : johohun@kornet.net Tel : 043-649-1347.
접수일(2008년 10월 9일), 수정일(2008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1) 맹용재. 鍼灸大成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이에 그 후속 연구로서 『鍼灸大成』의 醫案 중 中10 醫案을 선택하여 그 原文에 懸吐, 解釋, 校勘, 字句解를 하고, 그 내용을 『鍼灸大成』의 本文 및 『景岳全書』 등과 비교함으로써 楊繼洲의 辨證, 選穴, 施術方法, 醫論 등을 분석함으로써 鍼灸治療의 문헌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의 구성 및 판본

『鍼灸大成』은 1601년 간행된 이래 수 십 차례 걸쳐 翻刻되었으며 대체로 아래의 것들이 중요한 판본이다.

1) 明本 : 首刊本

- 明 萬曆29년 山西平陽府에 趙文炳에 의해 刊行이 본이 本書의 祖本

2) 淸本

李月桂 刊刻本

- 順治 丁酉에 平陽之府 李月桂에 의해 重刊된 본
- 康熙 庚申에 다시 정밀히 교감 후 재판된 본
章廷建 隆丁巳年 本

3) 人民衛生出版社 1963년 校勘 排印本

4) 기타서적

黎明文化社業股份有限公司本

大星文化社本²⁾

杏林出版社本³⁾

(2) 연구방법

醫案을 연구하는 방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었다. 醫案이 옛 의가들의 임상경험을 기록한 것이므로 우선 내용에 대한 讀解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의학적인 내용의 이해라고⁴⁾ 할 수 있다.

2) 이수홍, 윤종화, 김갑성. 鍼灸大成 책편의 분석을 통한 양계주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0. 17(2) p.71.

3) 杏林出版社本은 “前重修鍼灸大成序, 順治丁酉, 李月桂撰”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李月桂 刊刻本을 底本으로 하여 懸吐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4) 김태희, 박영배. 醫案의 객관적 이해 방법에 대한 고찰(1).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0. 4(1). p.52.

본 연구의 版本은 杏林出版社本을 底本으로 하여 大星文化社本 및 人民衛生出版社, 排印本으로 校勘하였다.

原文에 대한 懸吐와 解釋은 杏林出版社本 『鍼灸大成』에 이미 실려 있으나, 그 版本은 原文의 誤脫字가 많음에 따라 誤譯이 적지 않기에 부득이 다시 懸吐 解釋하고, 아울러 校勘과 字句解를 더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하였다.

醫學的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鍼灸大成』의 本文의 내용으로써 醫案의 내용과 비교·분석하고, 또한 주로 張介賓의 『景岳全書』의 辨證과 治療와 비교·분석하였다.

III. 本論

【原文-1】

戊寅^[1]冬에 張相公長孫이 患瀉痢半載에 諸藥不效라 相公이 命子治之하사 曰昔翰林^[1]時에 患肚腹之疾하야 不能飲食하야 諸藥不效러니 灸中脘 章門 則飲食하니 其鍼灸之神이 如此라 今長孫이 患瀉痢하야 不能進食하니 可鍼灸乎오 予對曰瀉痢日久하야 體貌已變하니 須元氣稍復하야 擇日鍼灸하야 可也라한대 華嶺⁽¹⁾公子云 事已危篤矣니 望則治之오 不俟再擇日期하야야 卽鍼灸中脘 章門하니 果能飲食하니라

【校勘】

(1) 嶺 : 杏林出版社版에는 ‘崙(령)’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嶺’으로 고침.

【字句解】

[1] 戊寅 : 明나라 萬曆 6년 (西紀 1578년).

[2] 翰林 : 唐代 이래의 벼슬이름. 文事 經學의 선비를 모아 文學을 講究시키고 諸般 文書의 立案을 맡게 함.

【解釋】

戊寅年 겨울에 張 相公의 長孫이 痢疾을 반년 동안

않았는데 모든 약이 효과가 없었다. 相公이 내게 치료를 命하시어 가라사대 “전에 翰林에 있을 때 뱃속 병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떤 약으로도 효과가 없던 것을 中脘, 章門에 뜬을 뒀더니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그 침과 뜬의 神效가 이와 같더라. 지금 長孫이 실사와 이질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鍼과 뜬으로 가히 치료할 수 있는가?”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실사하고 이질한 날이 오래되어 體魄이 이미 變하였으니 모름지기 元氣가 조금 회복되어 擇日하여 침과 뜬을 해야 옳습니다.” 華嶺 公子가 이르되 “병이 너무 위독하니 보자마자 치료해야지 다시 날을 잡아 기약함을 기다릴 수 없다.” 즉시 中脘과 章門에 鍼과 뜬을 했더니 과연 능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考察】

이는 반년 동안 痢疾로 泄瀉하는 증상을 치료한 醫案이다.

楊繼洲는 痢疾을 반년 간 앓는 동안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고 몸이 허약해진 소모성 질환을 中脘, 章門에 鍼과 灸로 치료하였다. 『鍼灸大成』에 의하면 瀉痢, 陷下, 白痢, 赤痢 등으로 나누어 치료하되 뜬을 위주로 한다⁵⁾ 하였다.

章門은 臍下로부터 위로 心에 이르기까지 모두 脹滿하고 嘔吐煩悶하고 不進飲食하는 것을 치료한다⁶⁾ 고 하고, 또한 中脘은 先瀉, 霍亂, 瀉出不知를 치료한

다⁷⁾고 하였다.

한편 『景岳全書』에 痢疾에 대해 瀉下劑와 苦寒한 약물로 인한 폐해에 대해 “徐東舉는 말한다. 痢疾의 치료는 반드시 환자의 氣體厚薄과 이전에 瀉下 및 積을 공격하는 苦寒한 약을 썼었는지 脈의 有力 無力 및 正氣와 邪氣의 유여부족을 살펴 중에 따라 치료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요즘 의사들은 이질을 치료할 때 대부분 下劑와 지나치게 苦寒한 약물을 峻用하여 잘못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히 연령이 많고 몸이 약한 사람은 원기가 虛陷되어 지탱 할 수조차 없다. 胃氣가 이미 虛하여 痢疾은 더 심해지고 陽虛로 陰中으로 陷入하여 脫血이 이따금 大便으로 나오는 경우 의사들이 오히려 血病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에 苦寒한 약물을 써서 점차 脈이 끊어지고 四肢厥冷하다가 죽게 되니 그 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또한 요즘 이질을 앓는 사람은 대부분 脾胃가 먼저 허하고 나중에 積滯가 있으니 通滯하는 약을 적절히 쓰는데 이것이 다소 지나치면 이로 인해 虛脫에 이른다.”⁸⁾고 하였다.

또한 『景岳全書』에 오래된 痢疾에 대하여 誤治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오래된 痢疾로 陽虛하거나 寒涼한 약으로 지나치게 공격하여 脾胃의 元神이 고갈되어 滑脫이 그치지 않으면 本源이 이미 敗하

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30. “瀉痢：氣虛兼寒熱食積，風邪，驚邪，熱濕，陽氣下陷，痰積，當分治，瀉輕病重。陷下：灸脾俞，關元，腎俞，復溜，腹哀，長強，太溪，三里，氣舍，中脘，大腸俞。白痢：灸大腸俞。赤痢：灸小腸俞。”

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276. “章門（一名長平，一名脊膠）：大橫外，直季脅肋端，當臍上二寸，兩旁六寸，側臥，屈上足，伸下足，舉臂取之。又云：肘尖盡處是穴。脾之募。足少陽厥陰之會。『難經』曰：臍會章門。疏曰：臍病治此。『銅人』針六分，灸百壯。『明堂』日七壯，止五百壯。『素注』針八分，留六呼，灸三壯。主腸鳴盈盈然，食不化，脅痛不得臥，煩熱口乾，不嗜食，胸脅痛支滿，喘息，心痛而嘔，吐逆，飲食卻出，腰痛不得轉側，腰脊冷疼，溺多白濁，傷飽身黃瘦，賁豚積聚，腹腫如鼓，脊強，四肢懈惰，善恐，少氣厥逆，肩臂不舉。東垣曰：氣在於腸胃者，取之太陰，陽明，不下，取三里，章門，中脘。魏士珪妻徐病痢，自臍下上至於心皆脹滿，嘔吐煩悶，不進飲食。滑伯仁曰：此寒在下廉，爲灸章門，氣海。”

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52. “中脘（一名太倉）：上臍下一寸，臍上四寸，居心蔽骨與臍之中。手太陽，少陽，足陽明，任脈之會。上紀者，中脘也。胃之募也。『難經』曰：臍會中脘。疏曰：臍病治此。『銅人』針八分，留七呼，瀉五吸，疾出針。灸二十七壯，止二百壯。『明堂』日灸二十七壯，止四百壯。『素注』針一寸二分，灸七壯。主五膈，喘息不止，腹暴脹，中惡，脾疼，飲食不進，翻胃，赤白痢，寒癖，氣心疼，伏梁，心下如覆杯，心膨脹，面色萎黃，天行傷寒熱不已，溫瘧先腹痛，先瀉，霍亂，瀉出不知，食飲不化，心痛，身寒，不可俯仰，氣發噎。東垣曰：氣在於腸胃者，取之足太陰，陽明不下，取三里，章門，中脘。又曰：胃虛而致太陰無所稟者，於足陽明募穴中引導之。”

8)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124. “徐東舉曰 凡痢疾之治 須審病者氣體厚薄曾無通瀉及用攻積苦寒之藥 脈之有力無力 及正氣邪氣有餘不足 對證施治 未有弗效 今醫治病 多峻用下劑及苦寒太過 鮮有不致誤者 況年高與體弱之人 遂致元氣虛陷 反不能支 胃氣既虛 其病益甚 有陽虛陷入陰中 則脫血陣陣而下者 醫尙謂血病不已 仍用苦寒 漸至脈絕 四肢厥冷而死者 曷可勝紀 且今人之患病者 多有脾胃先虛而後積滯通滯之劑宜酌用也 稍過之 遂致虛脫 蓋有由焉”

여 溫補하는 모든 약을 峻用하더라도 반드시 효과가 없다. 급히 百會 氣海 天樞 神闕 등의 혈에 뜸을 떠 回陽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⁹⁾라고 하였다.

【原文-2】

丁丑^[1]夏에 錦衣^[2]張少泉公夫人이 患癩症二十餘載에 曾經醫數十이로대 俱未驗이라 來告予하야 診其脈에 知病入經絡이라 故⁽¹⁾手足牽引하며 眼目黑瞶하고 入心則搖叫⁽²⁾하니 須依理取穴이라야 方保得痊이라한대 張公은 善書而知醫하니 非常人也라 悉聽予言하니 取鳩尾 中脘하야 快其脾胃하고 取肩隅 曲池等穴하야 理其⁽³⁾經絡하고 疏其痰氣하야 使氣血流通 而癩自定矣라 次日에 則平安⁽⁴⁾然後에 以法制和痰健脾之藥하야 每日與服하나라

【校勘】

(1) 故 : 杏林出版社版에는 ‘故’가 생략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삽입.

(2) 叫 : 杏林出版社版에는 ‘叫’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고침.

(3) 其 :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는 ‘氣’로 되어 있고 杏林出版社版에는 ‘其’로 되어있는데 文義에 따라 ‘其’가 옳음.

(4) 妥 : 杏林出版社版에는 ‘安’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妥’로 고침. 妥는 온당할 타.

【字句解】

[1] 丁丑 : 明나라 萬曆 5년 (西紀 1577년).

[2] 錦衣 : 明나라 官署名. 綿衣衛의 略稱.

【解釋】

丁丑年 여름에 錦衣인 張少泉 公의 부인이 癩症을 앓은 지 20여년에 일찍이 수십 명의 의사를 겪었으나 모두 효험이 없었다. 와서 내게 말하여 그 맥을

진찰하니 病이 經絡으로 들어갔으므로 手足이 당기고 뒤틀리며 눈이 깜깜해지고, 병이 心으로 들어가면 경련하고 부르짖으니 모름지기 이치에 의거하여 取穴해야 바야흐로 보존하여 완치할 수 있다.

張公은 글씨를 잘 쓰고 의사를 아니 보통사람이 아니다. 모두 내 말을 듣더니 鳩尾, 中脘을 取하여 그脾胃를 快通케 하고, 다시 肩隅, 曲池 등 穴을 취하여 그 經絡을 다스리며 그 痰氣를 소통하여 氣血로 하여금 잘 유통케 하니 癩症이 곧바로 안정되었다. 다음 날에 平安해진 이후에 법에 따라 健脾 化痰하는 藥을 지어 매일 복용케 하였다.

【考察】

이는 부인이 20여년이 넘도록 癩疾을 앓고 있는 것을 치료한 醫案이다.

婦人이 20여 년간 癩症이 있어 여러 醫師의 치료에도 모두 효험이 없거늘, 楊繼洲가 鳩尾, 中脘을 먼저 취하고 肩隅, 曲池 등을 취하여 치료하였다.

癩病으로 진단하였으나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도리어 脾氣까지 손상시킨 경우인데 『景岳全書』에 “癩癧症은 火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火邪가 없을 때는 함부로 涼藥을 써선 안 되는데 脾氣를 상하여 다른 증으로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¹⁰⁾고 하여 脾氣의 손상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 醫案이 여기에 해당된다.

『鍼灸大成』에서 癩疾에 대해 小兒의 경우 驚癩, 風癩, 豬癩, 食癩, 羊癩, 牛癩, 馬癩, 犬癩, 鳩癩(雞癩) 등으로 나누어 치료하였는데¹¹⁾, 食癩에 鳩尾를 사용하였다. 또한 風癩에 神闕과 鳩尾에 뜸을 뜬다¹²⁾고

1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548. “癩癧證無火者多 若無火邪 不得妄用涼藥 恐傷脾氣 以致變生他證”

11)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21. “驚癩 : 頂上旋毛中(灸三壯), 耳後青絡(灸三壯, 柱如小麥大). 風癩, 手指屈如數物者 : 鼻上發際宛宛中, 灸三壯. 豬癩如屍厥, 吐沫 : 巨闕(三壯). 食癩先寒熱, 灑淅乃發 : 鳩尾上五分, 三壯. 羊癩 : 九椎下節間(灸三壯) 又法 : 大椎三壯. 牛癩 : 鳩尾(三壯) 又法 : 鳩尾, 大椎各三壯. 馬癩 : 仆參(二穴, 各三壯) 又法 : 風府, 臍中各三壯. 犬癩 : 兩手心, 足太陽, 肋戶(各三壯). 雞癩 : 足諸陽(各三壯)”

1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291. “風癩 : 神庭, 百會, 前頂, 涌泉, 絲竹空, 神闕(一壯), 鳩尾(三壯).”

9)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122. “久痢陽虛 或因攻擊·寒涼太過 致竭脾胃元神而滑脫不止者 本源已敗 雖峻用溫補諸藥 亦必不能奏效矣 宜速灸百會 氣海 天樞 神闕等穴以回其陽 庶或有可望生者”

하였다. 또한 成人과 小兒의 五癰에 水溝, 百會, 神門, 金門, 崑崙, 巨闕을 사용하였다.¹³⁾

楊繼洲는 癰疾을 誤治하여 손상된 脾氣를 회복하기 위해 中脘을 取하고, 또한 食間에 사용하는 鳩尾를 取하여 치료하였다.

鳩尾는 일반적으로 五癰의 主治穴로 사용되며¹⁴⁾¹⁵⁾¹⁶⁾¹⁷⁾ 『鍼灸大成』에는 灸法을 禁하는 것과 灸法을 허용하는 내용¹⁸⁾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 穴은 본래 禁하는 穴이 아님이 분명하고 禁하게 된 까닭은 鳩尾를 시술하면 心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옛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다.¹⁹⁾

中脘穴은 『難經』에 “腑會는 中脘이다”라고 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그 主治에 癰疾은 비록 해당되지 않으나 李東垣의 說에 근거하여 胃虛하여 足太陰脾가 허해진 경우 胃經의 募穴인 中脘을 취한다²⁰⁾고 하였고, 『扁鵲心書』에도 癰病을 치료한다²¹⁾²²⁾는 내

용이 있다.

【原文-3】

戊辰^[1]歲에 吏部觀政^{[1][2]}李遂麓公이 胃旁一痞塊 | 如覆杯하고 形體羸瘦하야 藥勿愈라 予視之曰 概有形於內하니 豈藥力所能除리오 必鍼灸可消라하고 詳取塊中하야 用以盤鍼之法^[3]하고 更灸食瘡^[4] 中脘穴而愈라 李^[2]遂^[5]麓公이 問曰 人之生痞 與痰癖 積聚 癥瘕는 是如何오 曰痞者는 否也니 如易所謂天地不交之否라 內柔外剛하야 萬物不痛之意也라 物不可以終否라 故痞久則成脹滿而莫能療焉이라 痰癖者는 懸絕隱僻이오 又玄妙莫測之名也라 積者는 迹也니 挾痰血하야 以成形迹이며 亦鬱積之久之謂爾라 聚者는 緒也니 依元氣爲端緒하고 亦聚散不常之意云이라 癥者는 徵也며 又精也니 以其有所徵驗하야 及久而成精粹也라 瘕者는 假也오 又迥也니 以其假借氣血成形하고 及歷年迥^[3]遠之謂也라 大抵痞與痰癖은 乃胸膈之候오 積與聚는 爲腹內之疾이니 其爲上中二焦之病로 故多見於男子하고 其癥與瘕는 獨見於臍下니 是爲下焦之候故로 常見於婦人이라 大凡腹中有塊는 不問男婦하고 積聚 癥瘕 俱爲惡症이니 切勿視爲尋常이라 初起而不求早治라가 若待痞疾脹滿하야 已成胸膈鼓急이면 雖扁鵲이 復生이라도 亦莫能救其萬一이니 有斯疾者는 可不懼乎아 李公이 深以爲然이라

【校勘】

(1) 吏部觀政 : 杏林出版社版에는 ‘吏部觀政’이 누락되어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삽입.

(2) 李 : 杏林出版社版에는 ‘李’가 누락되어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삽입.

(3) 迥 : 杏林出版社版에는 ‘遐’로 되어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고침.

- 1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291. “大小五癰 : 水溝, 百會, 神門, 金門, 崑崙, 巨闕.”
- 1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78. “鳩尾獨治五般癰, 此穴須當仔細觀, 若然着艾宜七壯, 多即傷人鍼亦難.”
- 1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80. “後谿鳩尾及神門, 治療五癰立便痊.”
- 1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14. “癰俱是痰火, 不必分馬牛六畜. 灸百會, 鳩尾, 上脘, 神門, 陽蹻(晝發), 陰蹻(夜發).”
- 1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32. “第一百三十一 五癰等症 : 上星, 鬼祿, 鳩尾, 湧泉, 心俞, 百會.”
- 1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258. “鳩尾(一名尾翳, 一名鬲舒)在兩岐骨下一寸. 曰鳩尾者, 言其骨垂下如鳩尾形. 任脈之別. 『銅人』鍼灸, 灸之令人少心力, 大妙手方針, 不然針取氣多, 令人夭. 針三分, 留三呼, 瀉五吸, 肥人倍之. 『明堂』灸三壯. 『素注』不可刺灸.”
- 19) 黃龍祥 著. 박현국, 윤종화, 김기욱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1111.
- 20)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52. “中脘(一名太倉) : 上脘下一寸, 臍上四寸, 居心蔽骨與臍之中. 手太陽, 少陽, 足陽明, 任脈之會. 上紀者, 中脘也. 胃之募也. 『難經』曰 : 腑會中脘. 疏曰 : 腑病治此. 『銅人』針八分, 留七呼, 瀉五吸, 疾出針. 灸二七壯, 止二百壯. 『明堂』日灸二七壯, 止四百壯. 『素注』針一寸二分, 灸七壯. 主五膈, 喘息不止, 腹暴脹, 中惡, 脾疼, 飲食不進, 翻胃, 赤白痢, 寒癖, 氣心疼, 伏梁, 心下如覆杯, 心膨脹, 面色萎黃, 天行傷寒熱不已, 溫瘧先腹痛, 先瀉, 霍亂, 瀉出不知, 食飲不化, 心痛, 身寒, 不可俯仰, 氣發啞. 東垣曰 : 氣在於腸胃者, 取之足太陰, 陽明不下, 取三里, 章門, 中脘. 又曰 : 胃虛而致太陰無所稟者, 於足陽明募穴中瀉之.”

- 21) 田從豁, 余茂基, 臧俊岐, 劉保延 編著. 古代鍼灸醫案釋按. 上海中醫藥大學出版. 上海. 1997. p.135. “『扁鵲心書』一人病癰三年餘, 灸中脘五十壯, 即愈.”
- 22) 田從豁, 余茂基, 臧俊岐, 劉保延 編著. 古代鍼灸醫案釋按. 上海中醫藥大學出版. 上海. 1997. p.135. “『扁鵲心書』一婦人病癰二十年, 亦灸中脘五十壯, 愈. 凡人有此疾, 惟灸法取效最速, 藥不及也.”

【字句解】

- [1] 戊辰：明나라 隆慶 2년 (西紀 1568년).
- [2] 吏部觀政：吏부에 속해 있는 관직명칭.
- [3] 盤鍼之法：鍼을 쟁반 돌리듯 돌리는 手技로 金元시대 竇漢卿이 纂한 『鍼經指南』에 나오는 刺鍼 14法 手技 중 하나. 조작방법은 북부의 軟 부위에 刺鍼하여 鍼尾를 360도 環狀으로 5회 回轉하는 手技. 左回轉하여 挿鍼하면 補, 右回轉하여 退鍼하면 瀉가 됨. 이 手技는 자극을 下降하는 일정한 작용이 있음.
- [4] 食瘡：經外奇穴로서 中脘穴 兩傍 各3寸에 위치하고 있음.
- [5] 邃：깊을 수.

【解釋】

戊辰年에 吏部 觀政인 李邃麓(이수록) 공의 胃 근처에 하나의 痞塊가 술잔을 엮어놓은 것 같고 몸이 무척 야위어서 藥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내가 보고 가로되 “대개 안에 形이 있는 것을 어찌 藥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 반드시 鍼과 灸로 消散시켜야 한다.” 塊의 한가운데를 자세히 살펴 취하여 盤鍼法을 사용하고 다시 食倉과 中脘穴에 뜬땀더니 나왔다.

李邃麓 公이 물어 가로되 “사람에게 痞와 痰癖, 積聚, 癥瘕 등이 왜 생기는가?” 내가 가로되 “痞라는 것은 否다. 『周易』에 이른바 천지가 交通하지 않는 否라. 內柔 外剛하여 萬物이 不通하는 뜻이다. 만물은 끝내 否하지 않으므로 痞가 오래되면 脹滿이 되어 능히 치료하지 못한다. 痰癖이라는 것은 현격히 끊어지고 숨어있고 외졌다는 뜻이며 玄妙하여 측량하지 못한다는 이름이다. 積이라는 것은 자취라는 뜻이니 痰과 血을 끼어 흔적을 만든다는 뜻이며 또한 鬱하고 쌓인 것이 오래된 것을 일컫는다. 聚라는 것은 실마리[緒]를 뜻하며 元氣에 의지하여 실마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한 모이고 흠어짐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癥은 정조라는 뜻이며 또한 精粹라는 뜻이니 그 징험하는 바가 있으며 또 오래되면 精粹가 되기 때문이다. 瘕는 빌린다는 뜻이고 멀다는 뜻이니 그 기혈을 빌려서 형체를 이루며 또한 해를 지난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대체로 痞와 痰癖은 胸膈에 생기는 症候이고 積과 聚는 腹腔 속의 병이니

上焦와 中焦의 병이므로 男子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 癥과 瘕는 홀로 배꼽 밑에서 나타나니 이는 下焦의 徵候이므로 항상 부인들에게 나타난다. 대범 腹腔 속에 塊가 있는 경우는 남녀를 불문하고 생기는 積聚와 癥瘕는 모두 惡症이니 절대 보통의 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처음 발병할 때 조속히 치료하기를 구하지 않다가 만약 痞疾이 脹滿이 되어 胸腹이 鼓急함을 이루면 비록 扁鵲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그 만 명 중 한 명도 구해낼 수 없으니, 이런 병이 있는 자는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李公도 깊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考察】

이는 心下에 痞塊가 있으며 몸이 야윈 증상을 盤鍼의 手技로 치료한 醫案이다.

胃 근처에 술잔을 엮어놓은 것 같은 痞塊 한 덩어리가 있고 몸이 무척 야위었기에 藥으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거늘, 楊繼洲가 그 痞塊의 한 가운데를 盤鍼 手技로 刺鍼하고 다시 食倉과 中脘穴에 뜬땀서 치료하였다.

積聚의 치료에 대해 『鍼灸大成·卷八』 『諸般積聚門』에서 心下에 痞塊가 있어서 잔을 엮어놓은 것과 같은 때에 中脘, 百會를 사용한다²³⁾고 하였다.

또한 『鍼灸大成·卷八』 『諸般積聚門』에서 氣塊冷氣와 一切 氣疾에 氣海穴을 사용한다²⁴⁾고 하였고, 특히 腹中の 氣塊에는 塊頭上 一穴에 二寸半의 깊이로 침을 놓고 뜬땀을 14장하며, 塊中穴에 三寸 깊이로 침을 놓고 뜬땀을 21장하며, 塊尾 一穴에 三寸半의 깊이로 침을 놓고 뜬땀을 7장 뜬다²⁵⁾고 하였다.

한편 『景岳全書』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積은 반드시 腸胃의 밖, 幕原의 사이에 있어 원래 藥力이 빨리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阿魏膏, 琥珀膏나 水紅花膏 三聖膏의 종류로 그 위부를 攻하고 다시 長桑君

2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04. “心下如杯, 中脘, 百會.”
 2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04. “氣塊冷氣, 一切氣疾, 氣海穴.”
 2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05. “腹中氣塊: 塊頭上一穴, 針二寸半, 灸二十七壯, 塊中穴, 針三寸, 灸三七壯, 塊尾一穴, 針三寸半, 灸七壯.”

鍼法으로 그 내부를 攻해야 한다. 한편 이 단단하고 頑固한 積은 火攻이 아니면 결국 消散하기 힘들므로 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내가 北京에 있을 때 왼쪽 옆구리에 痞塊이 있는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고쳤는데 모두 灸法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²⁶⁾ 라고 하여 완고한 積塊에 대해서는 藥力이 빨리 도달할 수 없어서 灸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술하고 자신의 臨床例도 적어 놓았다.

痞塊를 제거할 때에는 주로 中脘穴과 그 積塊가 외부로 보이는 곳에 대해 치료를 하고 있으며²⁷⁾²⁸⁾²⁹⁾ 長桑君鍼積塊癥瘕法³⁰⁾도 사용하였다.

虛損에 痞塊가 겹쳐있는 증상에 어떤 증상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續名醫類案』에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배꼽아래에 痞塊를 먼저 제거하고 鍼灸治療³¹⁾하였다는 예가 있다.

【原文-4】

戊辰^[1]歲에 戶部^[2]王縉嚴⁽¹⁾公의 乃第 患心癰疾 數載矣라 徐堂翁이 召予視之어늘 須行八法開闢^[3]이

라야 方可라한데 公이 如其言而刺照海 列缺하고 灸心輸等穴하야 其鍼待氣至하야 乃行生成之數^[4]而愈라 凡治此症은 須分五癰^[5]이니 此卷前⁽²⁾에 載之詳矣라 茲不悉錄하노라

【校勘】

(1) 嚴 : 杏林出版社版에는 ‘菴’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고침.

(2) 前 : 大星文化社版에는 ‘全’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杏林出版社版을 따름.

【字句解】

[1] 戊辰 : 明나라 隆慶2년 (西紀 1568년).

[2] 戶部 : 전국의 土地, 戶籍, 稅金의 財政收支를 관장하는 곳. 장관은 戶部尙書임.

[3] 八法開闢 : 八法은 靈龜八法(일명 奇經納卦法)을 의미하고, 開闢은 子午流注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66穴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에 따라 五俞穴을 선택하여 選穴하는 방법임.

[4] 五癰 : 馬, 羊, 猪, 牛, 鷄의 5종류의 癰을 말함.

[5] 生成數 : 吉數인 陽數(1,3,5,7,9)를 말함.

【解釋】

戊辰년에 戶部の 王縉嚴 公의 아우가 心癰을 앓은 지 여러 해였다. 徐堂翁이 나를 불러 보게 하거늘 모름지기 八法開闢을 행해야만 바야흐로 可하였다. 公은 그 말과 같이 照海, 列缺에 刺鍼하고 心俞 등穴에 뜸을 떠서 그 鍼이 氣가 오기를 기다려서 이에 生成數를 행하니 나았다. 이 병증을 치료함에 모름지기 五癰을 나누어야 하니, 이 책의 앞에 상세히 기재하였기에 다시 기록하지 않는다.

【考察】

이는 수년 된 心癰을 靈龜八法으로 치료한 醫案이다.

癰疾은 五臟으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楊繼洲는 心癰을 치료함에 있어 치료하는 日時의 干支의 숫자를 계산함으로써 照海, 列缺을 刺鍼하고, 心經의 俞穴인 心俞 등을 뜸떠서 치료하였다.

- 26)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057. “凡堅鞭之積, 必在腸胃之外, 募原之間, 原非藥力所能猝至, 宜用阿魏膏, 琥珀膏, 或水紅花膏, 三聖膏之類以攻其外, 再用長桑君鍼法以攻其內. 然此堅頑之積, 非用火攻, 終難消散, 故莫妙於灸. 余在燕都, 嘗治愈痞塊在左脇者數人, 則皆以灸法收功也.”
- 2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172. “痞塊不散, 心中悶痛 : 大陵, 中脘, 三陰交.”
- 2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32. “[第一百三十] 肚中氣塊, 痞塊, 積塊 : 三里, 塊中, 塊尾.”
- 29)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293. “腹中氣塊, 塊頭上一穴, 鍼二寸半, 灸二七壯. 塊中穴, 鍼三寸, 灸三七壯, 塊尾一穴, 鍼三寸半, 灸七壯.”
- 3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060. “長桑君鍼積塊癥瘕法 : 先於塊上鍼之, 甚者, 又於塊首一鍼, 塊尾一鍼, 訖以艾灸之, 立應.”
- 31) 魏之琇 編. 續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63. “韓貽豐治魯中翰如穎, 病數日, 二旬不食矣. 已治木, 韓視之, 病色如灰, 聲低喉澀, 瞳神黯然無光, 私語其子, 曰此甚難治, 病者覺之. 乃哀懇, 曰我今年六十七矣, 即死不爲天. 但遇神鍼而不一用而死, 死且不瞑目, 我生平好酒而不好色, 幸爲我下一鍼. 於是乃勉爲用鍼, 令臥床坦腹, 拊其臍下有一痞. 周遭徑七寸, 堅硬如石, 乃以梅花鍼法, 重重鍼之. 又鍼其三脘, 又鍼其百勞, 百會, 皆二十一鍼, 鍼畢, 令飲醇酒一杯.”

『鍼灸大成』에서 心俞는 狂走發癇을 치료한다고³²⁾ 하였다.

이 醫案은 癇疾을 치료한 다른 醫案과 달리 靈龜八法을 활용하여 잘 치료한 예를 남겼다는 점에서 독특한 가치가 있다.

靈龜八法の 開闔 계산법은 『鍼灸學(下)』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按日과 按時의 干支 숫자를 합하여 按日의 天干이 陽이면 9로, 按日의 天干이 陰이면 6으로 나누어 남는 수를 「九宮八卦八穴圖」에서 찾는 것이다.

日干支의 運用은 甲巳辰戌丑未는 十, 乙庚申酉는 九, 丁壬卯酉는 八, 戊癸巳午는 七, 丙辛亥子는 六의 「八法逐日干支歌」를 應用하고 있으며, 時干支의 運用은 甲巳子午는 九, 乙庚丑未는 八, 丙辛寅申은 七, 丁壬卯酉는 六, 戊癸辰戌은 五, 己亥는 四의 「八法臨時干支歌」를 응용한다.

예를 들어 甲子日 乙丑時라면 甲子日의 甲은 10子是 7 합은 17, 乙丑時의 乙은 8 丑은 8 합은 16이고 甲日의 甲은 陽으로 9를 나누면 3이 답수가 되므로 乾卦에 해당하는 公孫혈이 이용되고 다시 公孫穴이 交會穴인 內關穴을 配合하여 應用한다³³⁾고 하였다.

五癇의 治療에 대해서 『鍼灸大成』에서 五癇等症에 上星, 鬼祿, 鳩尾, 湧泉, 心俞, 百會를 사용하되, 馬癇에 照海, 鳩尾, 心俞를, 風癇에 神庭, 素膠, 湧泉을, 食癇에 鳩尾, 中脘, 少商을, 豬癇에 湧泉, 心俞, 三里, 鳩尾, 中脘, 少商, 巨關을 사용한다³⁴⁾고 하였다.

【原文-5】

壬申^[1]歲에 大尹夏梅源公이 行次에 至蛾眉菴^{[1][2]} 寓하야 患傷寒이라 同寅諸公이 迎視^[3]하니 六脈微細하야 陽症得陰脈이라 經에 云陽脈이 見於陰經이면 其生也可知오 陰脈이 見於陽經이면 其死也可許라 하니 予居玉河坊하야 正值^[4]考績^[5]하야 不暇往返之勞라 若辭而不治러니 此公이 在遠方客邸^[6]하고 且菴^[2] 政清苦라 予甚惻之하야 先與柴胡加減之劑하야 少效로대 其脈이 尙未合症이라 予竭精殫思^[7]하야 又易別藥하고 更鍼內關하니 六脈이 轉陽矣라 遂次第進以湯散而愈라 後轉升戶部하야 今爲正郎하니라

【校勘】

- (1) 菴 : 杏林出版社版에는 菴으로 되어 있고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는 嚴으로 되어 있음. 문맥상 菴이 옳다.
- (2) 菴 : 杏林出版社版에는 菴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 고침. 菴은 임할 리. 다다를 리.

【字句解】

- [1] 壬申 : 明나라 隆慶 6년 (西紀 1572년).
- [2] 蛾眉菴 : 암자의 이름.
- [3] 迎視 : 영접한다는 겸칭.
- [4] 正值 : 마침 할 때이다.
- [5] 考績 : 관리의 공적을 조사함.
- [6] 客邸 : 古代 여관의 일종.
- [7] 竭精殫思 :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함.

【解釋】

壬申年에 大尹인 夏梅源 공이 행차하다가 蛾眉菴 (암자 이름)에 이르러 기숙할 때에 傷寒을 앓았다. 그의 동료 諸公들이 (나를) 맞이하여 보게 하니 보니 六脈이 微細하였으며 陽症에 陰脈이었다. 經에 이르러 “陽脈이 陰經에 나타나면 살 수 있음을 알고, 陰脈이 陽經에 나타나면 그 죽음을 가히 허여한다.”고 하였다. 내가 玉河의 坊(동네)에 살아 바로 考績의 직책을 맡을 때라서 오가면서 수고로울 겨를이 없기에 사양하고 치료하지 못할 듯하였더니, 이 공이 먼 곳

3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97. “心俞 : 五椎下兩旁相去脊各一寸五分, 正坐取之. 『銅人』針三分, 留七呼, 得氣即瀉, 不可灸. 『明堂』灸三壯. 『資生』云 : 刺中心一日死, 其動爲噫, 豈可妄針. 『千金』言 : 中風心急, 灸心俞百壯, 當權其緩急可也. 主偏風半身不遂, 心氣亂恍惚, 心中風, 偃臥不得傾側, 汗出唇赤, 狂走發癇, 語悲泣, 心胸悶亂, 咳吐血, 黃疸, 鼻衄, 目昏昏, 嘔吐不下食, 健忘, 小兒心氣不足, 數歲不語”

33) 全國韓醫科大學校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下). 서울, 集文堂. 1988. p.1137.

3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453-454. “[第一百三十一] 五癇等症 : 上星, 鬼祿, 鳩尾, 湧泉, 心俞, 百會. [第一百三十二] 馬癇 : 照海, 鳩尾, 心俞. [第一百三十三] 風癇 : 神庭, 素膠, 湧泉. [第一百三十四] 食癇 : 鳩尾, 中脘, 少商. [第一百三十五] 豬癇 : 湧泉, 心俞, 三里, 鳩尾, 中脘, 少商, 巨關.”

의 客邸에 있고 또한 백성을 다스림이 깨끗하고 수고가 많기에 내가 공을 몹시 측은하게 여기고 먼저 柴胡를 加減한 藥劑를 투여하였더니 약간의 效驗이 있었으나 그 脈이 여전히 病症과 부합하지 않았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또한 다른 약으로 바꾸고 또 內關에 刺鍼하였더니 六脈이 다시 陽脈이 되었다. 마침내 차례대로 湯藥, 散藥으로 드렸더니 나왔다. 공은 후에 戶部로 승진하여 지금은 戶部 正郎이 되었다.

【考察】

이는 傷寒病에 陽症에 陰脈이 나타나는 위태로운 病을 鍼과 藥을 사용하여 完治한 의안이다.

傷寒病에 症狀은 陰이나 脈象은 陽인 경우는 살거니와 症狀은 陽이나 脈象은 陰인 경우는 죽는다³⁵⁾고 하였다.

楊繼洲는 陽病에 陰脈이 나타나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小柴胡湯의 加減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다시 內關에 刺鍼하여 六脈을 陽脈으로 바꾼 뒤 湯藥과 散藥을 투여하여 완치하였다.

『鍼灸大成』에서 內關은 주로 胸中の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한다³⁶⁾고 하였으나, 傷寒病的 證과 脈의 陰陽이 相反할 때 內關을 刺鍼하여 陰脈을 陽脈으로 바꿔놓아 치료가 가능하게 한 醫案은 경우는 楊繼洲의 독특한 治驗例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原文-6】

壬戌歲^[1]에 吏部^[2]許敬嚴公이 寓靈濟宮할새 患腰痛之甚이라 同鄉 董龍山公이 推予視之하야 診其脈하니 尺部沈數有力이라 然이나 男者尺脈은 固宜沈實이로대 但帶數有力하니 是는 濕熱所致 有餘之疾也니 醫作不足治之則非矣라 性畏鍼일새 遂以手指로 於腎輸穴에 行補瀉之法하니 痛稍減하고 空心에 再與除濕行氣之劑러니 一服而安이라. 公이 曰 手法代鍼하야 已嘗痛減이어늘 何乃再服滲利之藥乎아 予曰 鍼能劫

病이로대 公性畏鍼이라 故로 不得已而用手指之法하니 豈能驅除其病根이리오 不過暫減其痛而已이라 若欲全可면 須鍼腎輸穴이어늘 今旣不鍼일새 是用滲利之劑也라. 豈不聞前賢이 云腰乃腎之腑오 一身之大關節이라. 脈沈數는 多是濕熱壅滯니 須宜滲利之오 不可用補劑어늘 今人은 不分虛實하고 一概誤用하야 多致綿纏^[3]하야 痛疼不休라(出玉機中) 大抵喜補惡攻은 人之恒情也나 邪濕去而新血生이니 此非攻中有補存焉者乎아

【字句解】

[1] 壬戌歲：明나라 嘉靖 41년 (西紀 1562년).

[2] 吏部：明나라 官署명칭. 전국관리의 任免 심사, 승진 등을 담당.

[3] 綿纏：숨 실로 동여매는 것. 미봉책.

【解釋】

壬戌年에 吏部의 許敬嚴 公이 靈濟宮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요통으로 괴로움이 심하여 동향인 董龍山 公이 나를 추천하여 보도록 해서 그 脈을 진찰해 보니 尺部가 沈數 有力하였다. 그러나 男子의 尺部 脈象은 진실로 沈實함이 마땅하되 數有力을 띠었으니 이는 濕熱의 所致로 有餘(實)의 병이니 의사가 부족으로 간주하여 치료하면 그르다. (許敬嚴 公)의 성품이 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침내 손가락으로 腎輸穴에 補瀉法을 행하니 통증이 조금 줄어들고 공복에 다시 除濕 行氣하는 藥劑를 주었더니 한 번 복용함에 편안해졌다. 公이 가로되 “手法이 鍼을 대신하여 이미 일찍이 통증이 줄어들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滲利하는 藥을 주었는가?” 내가 가로되 “鍼으로 能히 病을 물리칠 수 있으나 公의 성품이 침을 두려워하므로 부득이 手指의 法을 사용하였으니 어찌 能히 그 病根을 몰아내고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그 통증을 덜게 한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만약 온전히 낫고자 하면 모름지기 腎輸穴에 침을 놓아야 하거늘 지금 이미 침을 놓지 않았기에 이에 滲利하는 藥劑를 사용하였으니, 어찌 前賢이 이르되 ‘腰가 腎의 腑이고 一身의 大關節이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脈이 沈數한 것은 흔히 濕熱이 壅滯한 것이니 모름지기 마

35) 成無己. 仲景全書·傷寒論注·辨脈法.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3. “凡陰病見陽脈者生, 陽病見陰脈者死.”

3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66. “胸中之病內關擔.”

땅히 滲利해야 하지 補劑를 사용해서는 안 되거늘 지금 사람들은 虛實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잘못 사용하여 병이 얹히고 섬힘에 흔히 이르러 동통이 그치지 않도다. (『玉機』中에서 나온다.) 대저 補를 기뻐하고 攻을 미워함은 사람의 몇몇한 情이나 邪인 濕이 제거되어야 새로운 血이 생기니 이는 攻하는 中에 補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考察】

이는 濕熱腰痛에 腎俞穴을 鍼을 대신하여 손가락으로 통증을 경감한 醫案이다.

楊繼洲는 腰痛에 尺部沈數 有力한 脈을 근거로 濕熱邪로 인한 腰痛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환자가 鍼을 두려워하므로 鍼 대신에 手技法으로 腎俞穴에 補瀉를 행하여 놀려주었더니 통증이 조금 가벼워지고, 除濕 行氣하는 藥劑를 空腹에 복용케 하여 치료하였다.

楊繼洲는 濕熱腰痛에 만약 腎俞穴에 刺鍼했다면 굳이 投藥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手技法만으로는 濕熱邪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小兒의 여러 病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手技法을 사용한 것³⁷⁾ 이외에 成人에게 手技法으로 치료한 것은 다른 臨床例에서 찾기가 힘든 귀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原文-7】

壬申歲^[1]에 行人^[2]虞紹東翁이 患膈氣之疾하야 形體羸瘦하고 藥餌難愈라 召予어늘 視之하니 六脈沈澁이라 須取臍中하야 以調和其膈하고 再取氣海하야 以保養其源하니 而元氣充實하고 脈息自盛矣라 後擇時하야 鍼上穴호대 行六陰之數하고 下穴에 行九陽之數하고 各灸七壯이러니 遂全愈하야 今任揚州府太守라 庚辰^[3]過揚復觀하니 形體豐厚니라

【字句解】

[1] 壬申歲：明나라 隆慶 6년 (西紀1572년).

3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65. “內疇驚, 掐天心穴. 慢驚不省人事, 亦掐總心穴. 急驚如死, 掐兩手筋. 眼閉, 瞳子膠瀉. 牙關緊, 頰車瀉. 口眼俱閉, 迎香瀉. 已上數法, 乃以手代鍼之神術也, 亦分補瀉.”

[2] 行人：明나라 때 行人司라는 것을 설치하고 行人之官을 두었음. 傳旨와 冊封 등을 관장.

[3] 庚辰：明나라 萬曆 8년 (西紀 1580년).

【解釋】

壬申年에 연락관인 虞紹東 翁이 膈氣의 병을 앓아서 形體가 파리하고 여위고 藥餌로 낫기가 어려웠다. 나를 불러서 보게 하니 六脈이 沈澁하였다. 모름지기 臍中을 取하여 그 膈을 調和하고 다시 氣海를 취하여 그 근원을 保養하니 元氣가 充實하고 脈息이 저절로 盛해졌다. 後에 때를 가려서 上穴(臍中)에 鍼을 놓되 六陰數를 行하고 下穴(氣海)에는 九陽數를 行하고 나서 각각 뜸을 7장을 떼더니 마침내 다 나아서 지금은 揚州府 太守에 임명되었다. 庚辰年에 楊洲를 지나다가 다시 보니 形體가 여전히 살지고 厚하였다.

【考察】

이는 老人이 膈氣로 인해 虛損에 이른 경우를 치료한 醫案이다.

노인이 膈氣를 앓아서 形體羸瘦하거늘 服藥이 소용없고 六脈이 沈澁하므로, 楊繼洲는 臍中을 취하여 膈氣를 치료하고 다시 氣海를 取하여 氣의 根源을 保養하였다.

膈氣에 服藥이 무효한 까닭은 脾胃의 虛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苦寒한 藥으로 瀉下했기 때문이다. 劉宗厚는 “이 병을 치료할 때 咽喉閉塞 胸膈痞悶하여 氣滯에 속하는 듯하나 氣를 소모하는 藥을 과다 복용하여 中氣가 운행하지 못해 생겼으면 補氣하면 저절로 운행한다.”³⁸⁾고 하고, 병의 원인으로는 근심, 걱정과 생각, 누적된 과로와 鬱症, 또는 지나친 酒色에 의한 손상으로 생기고, 그로 인한 氣結과 傷陰 그리고 脾胃의 혈맥의 運化조절 실패로 나타난다³⁹⁾고 하였다.

38)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000. “劉宗厚曰 夫治此疾也, 咽喉閉塞, 胸膈痞悶, 似屬氣滯. 然有服耗氣藥過多, 中氣不運而致者, 當補氣而自運.”

39)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989. “噎膈一證, 必以憂愁思慮, 積勞積鬱, 或酒色過度, 損傷而成. 蓋憂思過度則氣結, 氣結則施化不行, 酒色過度則傷陰, 陰傷則精血枯涸, 氣不行則噎膈病於上, 精血枯涸則燥結病於下. 且凡人之臟氣, 胃司受納, 脾

또한 『景岳全書』에서는 “噎膈을 溫補로써 치료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壅滯될 것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작용이 더디고 완만한 것을 싫어하는데 中氣의 敗證이 이렇게 심하면 급히 근본을 구해야 이로 인해 脾胃氣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음을 모른다.”⁴⁰⁾고 하였고, 그 처방도 脾胃을 위주로 한다”⁴¹⁾고 하였다.

淸나라 程文囿의 『醫術』에서도 소년에게는 膈氣라는 증상을 보지 못했고 老人에게서만 보았으며 脾胃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²⁾

『鍼灸大成』에서 楊繼洲는 음식이 胸膈熱로 인해 잘 섭취가 안 될 때는 膻中穴을 사용하며⁴³⁾⁴⁴⁾ 氣海穴도 噎膈의 처방으로 사용한다⁴⁵⁾고 하였다.

【原文-8】

壬申¹⁾夏에 戶部尙書王疏翁이 患痰火熾盛하여 手臂難伸이라 予見形體強壯이 若是하니 濕痰이 流注經絡之中이라 鍼肩隅하여 疏通手太陰經與手陽明經之濕痰하고 復灸肺輸穴하여 以理其本이러니 則痰氣可淸而手臂能舉矣라 至吏部尙書하여 形體益壯하니라

主運化, 而腎爲水火之宅, 化生之本, 今既食欲停膈不行, 或大便燥結不通, 豈非運化失職, 血脈不通之爲病乎. 而運行血脈之權 其在上者, 非脾而何, 其在下者, 非腎而何, 矧少年少見此證. 而惟中衰耗傷者多有之, 此其爲虛爲實, 概可知矣. 故凡治此者, 欲舍根本而言捷徑, 又安望其有成功也.”

- 4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997. “用溫補以治噎膈, 人必疑其壅滯, 而且嫌迂緩, 不知中氣敗證, 此其爲甚, 使非速救根本, 則脾胃氣何由再健.”
- 41)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995. “凡治噎膈, 大法當以脾胃爲主.”
- 42) 田從豁, 余茂基, 臧俊岐, 劉保延 編著. 古代鍼灸醫案釋按. 上海中醫藥大學出版. 上海. 1997. p.77. “故淸程文囿『醫術』云: 余萬曆數十載, 見少年無此患, 年老有此症, 其爲氣血之虧, 水火之弱, 上焦之枯, 腸胃之燥, 已明效大驗. 又云: 治此者, 不急求脾胃根本而補救之, 盤縱事于開關詭導, 以爲捷徑, 醫亦愚矣.”
- 4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80. “噎氣吞酸食不投, 膻中七壯除膈熱.”
- 4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8. “膈疼飲食難禁, 膻中, 巨闕便鍼. 胸滿更加噎塞, 中府, 意舍所行. 胸膈停留瘀血, 腎俞, 巨膠宜徵.”
- 4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14. “膈腫: 因血瘀, 氣虛, 熱, 痰火, 血積, 癖積. 鍼天突, 石關 三里, 胃俞, 胃脘, 膈俞, 水分, 氣海, 胃倉.”

【字句解】

[1] 壬申 : 明나라 隆慶 6년 (西紀 1572년).

【解釋】

壬申年 여름에 戶部 尙書인 王疏翁이 痰火가 熾盛해서 손과 팔을 펴기가 어려운 병을 앓으셨다. 내가 보니 形體가 強壯함이 이와 같으니 濕痰이 經絡 中에 流走한 것이다. 肩隅에 鍼을 놓아서 手太陰經과 手陽明經의 濕痰을 疏通케 하고 다시 肺輸穴에 뜸을 떠서 그 根本을 다스렸더니 痰氣가 可히 맑아져서 手臂를 능히 들 수 있었다. 吏部 尙書에 이르러 形體가 더욱 건강해지셨다.

【考察】

이는 老人이 痰火, 濕痰으로 인한 肩臂痛을 치료한 醫案이다.

이 醫案은 비록 노인이라도 強盛하여 虛證이 아니라 痰火, 濕痰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痰火, 濕痰으로 판단한 근거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楊繼洲는 이처럼 濕痰으로 인한 肩臂痛에 肩隅에 침을 놓아 肺, 大腸의 濕痰을 소통케 하고, 肺俞에 뜸을 떠서 痰의 根本을 치료하였다. 한편 『鍼灸大成』에 楊繼洲는 肩臂痛은 濕痰을 위주로 하므로 肩隅, 曲池에 뜸을 뜬다⁴⁶⁾고 하였다.

『鍼灸大成』에 肺俞는 비록 癯氣, 黃疸, 勞瘵, 口舌乾, 勞熱上氣, 腰脊強痛, 寒熱喘滿, 虛煩, 傳屍骨蒸, 肺痿咳嗽, 肉痛皮癢, 嘔吐, 支滿不嗜食, 狂走欲自殺, 背僂, 肺中風, 偃臥, 胸滿短氣, 昏悶汗出, 百毒病, 食後吐水, 小兒龜背를 치료한다⁴⁷⁾고 하였으나 痰의 根本을 다스린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 4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432. “肩臂痛 痰濕爲主. 灸肩隅, 曲池.”
- 4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97. “肺俞: 第三椎下兩旁相去脊各一寸五分. 『千金』對乳引繩度之. 甄權以搭手, 左取右, 右取左, 當中指末是, 正坐取之. 『甲乙』針三分, 留七呼, 得氣即瀉. 甄權灸百壯. 『明下』灸三壯. 『素問』刺中肺三日死, 其動爲咳. 主癯氣, 黃疸, 勞瘵, 口舌乾, 勞熱上氣, 腰脊強痛, 寒熱喘滿, 虛煩, 傳屍骨蒸, 肺痿咳嗽, 肉痛皮癢, 嘔吐, 支滿不嗜食, 狂走欲自殺, 背僂, 肺中風, 偃臥, 胸滿短氣, 昏悶汗出, 百毒病, 食後吐水, 小兒龜背. 仲景曰: 太陽與少陽並病, 頭項強痛或眩冒,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太陽肺俞, 肝俞.”

【原文-9】

辛未^[1]歲에 浙撫^[2]郭黃崖公祖^[1] 患大便下血하여 愈而復作이라 問其致疾之由어늘 予對曰 心生血 而肝藏之 則脾爲之統이라 內經^[2]에 云 飲食自倍면 腸胃乃傷하여 腸癖^[3]而下血라하니 是皆前聖之言而可考者나 殊^[4]不知腸胃本無血이라. 多是痔疾이 隱於肛門之內이니 或因飲食過傷하고 或因勞欲怒氣하여 觸動痔竅하여 血隨大便而出이라. 先賢이 雖有遠血 近血之殊 而實無心 肺 大腸之分이오 又有所謂氣虛腸薄하여 自榮衛滲入者나 所感不同하니 須求其根이라하고 於長強穴에 鍼二分 灸七壯하니 內痔一消而血不出이라. 但時值公沈^[5]하여 不暇於鍼灸러니 逾數載에 升工部尙書할새 前疾大作하니 始知有痔隱於肛門之內라 以法調之愈하니라 至己卯^[4]하여 復會於汶上^[5]하니 云 不發矣러라 是歲에 公子萁川公長愛 忽患驚風하여 勢甚危篤할새 灸中衝 印堂 合谷等穴 各數十壯하니 方作聲이러라 若依古法而止灸三五壯이면 豈能得愈리오 是當量其病勢之輕重而已니라

【校勘】

- (1) 祖 : 杏林出版社版에는 ‘祖’가 누락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삽입.
- (2) 內經 : 『素問·痺論』을 지적함.
- (3) 癖 : 杏林出版社版에는 ‘澼’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고침.
- (4) 殊 :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須’로 되어 있음.
- (5) 沈 : 杏林出版社版에는 ‘兄’으로 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과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고침.

【字句解】

- [1] 辛未 : 明나라 隆慶 5년 (西紀 1571년).
- [2] 浙撫 : 浙江省 巡撫縣의 약칭.
- [3] 腸澼 : 大便下血.
- [4] 己卯 : 明나라 萬曆 7년 (西紀 1579년).
- [5] 汶上 : 山東省에 있는 縣名.

【解釋】

辛未年에 浙江省 巡撫縣의 郭黃崖 公의 할아버지

가 大便이 下血하는 병을 앓았는데 나왔다가 다시 재발하였다. 그 병이 된 이유를 물으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心은 피를 생하고 肝은 藏하고 脾는 피를 거느린다. 『內經』에 이르되 ‘마시고 먹는 것을 스스로 배가 되면 腸胃가 이에 傷하여 腸癖이 되어 下血한다.’고 하니 이는 모두 前聖의 말씀으로서 가히 참고할 만하나, 腸胃는 본래 피가 없음을 너무나도 알지 못한 것이다. 흔히 이 痔疾이 肛門의 內에 숨어 있으니, 혹은 飲食 過度로 傷하거나 혹은 과로, 욕심, 怒氣로 인하여 痔疾의 구멍을 觸動케 하여 피가 대변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先賢이 비록 遠血, 近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心, 肺, 大腸의 부분이 없다. 또한 이른바 氣가 虛하고 腸이 薄하여 榮衛로부터 滲入하는 경우가 있으나 (邪氣에) 感觸되는 바가 같지 않으니 모름지기 그 근원을 구해야 합니다.”라 하고 長強穴에 二分을 침놓고 七壯을 뜬더니, 內痔가 한 번에 제거되어 피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당시에 공이 어려움을 겪어서 침과 뜸을 할 겨를이 없더니 여러 해를 넘겨서 工部 尙書에 올랐을 때 전의 병이 크게 재발하니 비로소 치질이 항문의 안에 숨어있는 줄 알았다. 치법에 따라 조리하여 나왔다. 己卯年에 이르러 다시 山東省 汶上縣에서 만났는데 “재발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이때에 공의 아들 萁川(이름) 郭公의 첫째 따님이 갑자기 驚風을 앓아서 병세가 매우 위독하기에 中衝, 印堂, 合谷 등의穴에 뜸을 각각 수 십장을 떼더니 바야흐로 소리를 내고 울더라. 만약 古法에 따라서 단지 3-5장만 뜸을 떼었다면 어찌 능히 나올 수 있으리오! 이는 마땅히 그 病勢의 輕重을 헤아려야 할 따름이니라.

【考察】

이는 內痔의 出血과 小兒의 驚風을 치료한 醫案이다.

먼저 郭黃崖의 內痔로 인해 大便下血이 再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처치를 기술하였다. 內痔에 출혈하는 이유는 주로 飲食 過度, 과로, 욕심, 怒氣로 인하여 痔疾의 구멍을 觸動케 하여 피가 대변을 따라서 나온다고 하였다.

內痔의 出血은 비록 遠血, 近血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楊繼洲는 실제로는 心, 肺, 大腸의 구분이 없으며, 또한 氣가 虛하고 腸이 薄하여 榮衛로부터 滲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楊繼洲는 飲食 과다, 過勞, 욕심, 怒氣 등의 邪氣에 感觸되는 바가 같지 않다고 하였다. 이처럼 邪氣가 觸動하여 內痔로 出血된 경우, 楊繼洲는 長強穴에 침놓고 뜸뜨서 止血하게 하였다.

처음에 郭黃崖는 內痔 出血의 原因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出血이 再發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본인의 內痔 出血의 原因을 이해하여 조심함으로써 再發을 예방케 하였다.

『鍼灸大成』에서 長強穴은 腸風下血, 久痔癰를 치료한다⁴⁸⁾고 하였다.

한편 『景岳全書』에서는 “痢疾을 앓을 때 대부분 향문이 붓고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 脾胃가 불화하면 水穀의 기는 제대로 化하지 않아 탁하고 더러워 감당하기 힘든 味가 음식이 지나는 여러 길로 나오는데 이처럼 심한 아픔을 면할 길이 없다. 또한 火가 泄瀉로 인해 함하여 陰이 陽을 내쫓으면 胃中の 陽氣가 함께 하부로 몰려 解散하지 못하니 이로 인해 腫이 생긴다. 따라서 痢疾이 많으면 痛症이 많고 적으면 통증도 적는데 아프고 아프지 않음 역시 氣의 下陷 여부로 비롯될 뿐이다. 寒痢 熱痢를 막론하고 향문이 아플 수 있으니 아픈 것이 반드시 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치료는 단지 이질을 치료하여 이질이 그치면 붓고 아픈 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니 後重의 치법과 같다.”⁴⁹⁾라고 하여 痢疾을 앓을 때 대부분 향문이 붓고 아픈 이유는 腫 때문임을 밝

히고 있다.

長強穴은 일반적으로 腸風下血⁵⁰⁾⁵¹⁾이나 痔疾에 이용되는 穴이며⁵²⁾⁵³⁾, 『景岳全書』에서도 “오이만한 크기의 痔疾이 장두에 관통하여 발작하면 아프고 뻣뻣하게 넘어가는 것을 치료한다. 우선 荊芥달인 물로 환부를 씻고 그 위에 썩뜸 3-5壯을 시행한다. 腸속으로 한줄기 열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 1시간 정도 多量の 選穴과 더러운 피를 下血하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데 그 후에 병이 낫는다.”⁵⁴⁾라고 하여 痔疾에 대한 좀 더 발전된 外治法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또한 楊繼洲는 郭某川의 長女의 위태로운 驚風症에 대해 中衝, 印堂, 合谷 등을 뜸뜨서 치료하였는데, 뜸뜨는 壯數에 대해서 논한 것이 흥미롭다.

『鍼灸大成』에 小兒驚風에 腕骨을 取한다⁵⁵⁾고 하였다.

또한 中衝은 熱病煩悶, 汗不出, 掌中熱, 身如火, 心痛煩滿, 舌強을 치료하며⁵⁶⁾, 合谷은 傷寒大渴, 脈浮在表, 發熱惡寒, 頭痛脊強, 無汗, 寒熱瘧, 鼻衄不止, 熱病汗不出, 目視不明, 生白翳, 下齒齲, 耳聾, 喉痺, 面腫, 唇吻不收, 暗不能言, 口噤不開, 偏風, 風疹, 疥疥, 偏正頭痛, 腰脊內引痛, 小兒單乳鵝을 치료한다⁵⁷⁾

4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57. “長強(一名氣之陰邪, 一名癰骨): 脊髓骨端三分, 伏地取之. 足少陰, 少陽之會. 督脈絡, 別走任脈. 『銅人』針三分, 轉針以大痛爲度. 灸不及針, 日灸三十壯, 止二百壯, 此痔根本. 『甲乙』針二分, 留七呼. 『明堂』灸五壯. 主腸風下血, 久痔癰, 腰脊痛, 狂病, 大小便難, 頭重, 洞泄, 五淋, 疳蝕下部, 小兒凶陷, 驚癇瘵癘, 嘔血, 驚恐失精, 瞻視不正. 慎冷食, 房勞.”

49)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113. “凡病痢疾, 多有大孔腫痛者, 其故何也蓋脾胃不和, 則水穀之氣失其正化, 而濁惡難堪之味出諸孔道, 此痛楚之不能免也. 又若火因瀉陷, 陽爲陰逐, 則胃中陽氣并逼於下, 無從解散, 此腫之所由生也. 所以痢多則痛多, 痢少則痛少, 痛與不痛, 亦由氣之陷與不陷耳. 故無論寒痢·熱痢, 大孔皆能爲痛, 不能謂痛必由熱也. 欲治此者, 但治其痢, 痢止則腫痛自散, 亦如後重之法也”

50)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8. “刺長強於承山, 善主腸風新下血.”

51)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81. “痔疾腸風, 長強欺.”

5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59. “長強承山, 灸痔最妙.”

5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78. “九般痔漏最傷人, 必刺承山效若神, 更有長強一穴是, 呻吟大痛穴爲真.”

54)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2388. “治痔疾大如胡瓜, 貫於腸頭, 發則疼痛僵仆. 先以荊芥湯洗之, 以艾灸其上三五壯, 若覺一道熱氣貫入腸中, 必大瀉鮮血穢血, 一時許覺痛甚, 後其疾乃愈.”

5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291. “驚風: 腕骨.”

5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22. “中衝: 手中指端, 去爪甲角如韭葉陷中. 心包絡脈所出爲井木. 心包絡虛補之. 『銅人』針一分, 留三呼. 『明堂』灸一壯. 主熱病煩悶, 汗不出, 掌中熱, 身如火, 心痛煩滿, 舌強.”

5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58. “合谷(一名虎口): 手大指次指歧骨間陷中. 手陽明大腸脈所過爲原. 虛實皆拔之. 『銅人』針三分, 留六呼, 灸三壯. 主傷寒大渴, 脈浮在表, 發熱惡寒, 頭痛脊強, 無汗, 寒熱瘧, 鼻衄不止,

고 하였고, 印堂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처럼 침구대성의 「考定穴法」에는 驚風症에 대한 主治는 없다.

한편 뜸뜨는 壯數에 대해서 『明堂』에서 中衝은 1장을 뜨고, 合谷은 3장을 뜬다고 하였으나, 이 醫案에서 楊繼洲는 『明堂』의 古法에 구애하지 않고 病的輕重에 따라서 수십 장을 떠서 위태로운 小兒驚風을 잘 치료하였다.

【原文-10】

己卯歲^[1]에 因磁州一同鄉으로 次俸資往取⁽¹⁾라 道經臨洛關^[2]이러가 會舊知宋憲副公하니 云昨得一夢하야 有一眞人이 至舍相談而別이러니 今欲故人相顧하야 舉家甚喜러다 昨年에 長子 | 得一瘡疾이러니 近因下第^[3]抑鬱하야 疾轉加增하야 諸藥不效하니 如之奈何오 予答曰即刻可愈라한데 公이 愕然曰非惟吾子得安 而老母亦安矣로다 此公이 至孝하야 自奉至薄하니 神明感召라 予即鍼章門等穴하니 飲食漸進하고 形體清爽而腹塊即消矣라 權治數日이러가 偕親友하야 送至呂祖度盧生祠^[4]하야 不忍分袂^[5]而別하니라

【校勘】

(1) 因磁州一同鄉 次俸資往取 : 杏林出版社版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人民衛生版 大星文化社版에 의거하여 삽입.

【字句解】

- [1] 己卯歲 : 明나라 萬曆 7년 (西紀 1579년).
- [2] 臨洛關 : 山東省 臨淄縣과 洛陽(陝西省)의 경계 지역을 지칭하는 뜻함.
- [3] 下第 : 과거 시험의 낙방.
- [4] 呂祖度盧生祠 : 呂祖謙과 盧生(신선의 술법으로 진시황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을 모신 사당이라 추측됨.
- [5] 分袂 : 이별을 나눔.

【解釋】

己卯년에 磁州 同鄉이러서 (장차 그곳에) 머물러서

熱病汗不出, 目視不明, 生白翳, 下齒齲, 耳聾, 喉癢, 面腫, 唇吻不收, 暗不能言, 口噤不開, 偏風, 風疹, 癩疥, 偏正頭痛, 腰脊內引痛, 小兒單乳鵝. 按 : 合谷, 婦人妊娠可瀉不可補, 補即墮胎, 詳見足太陰脾經三陰交下.”

노갯돈을 가서 얻기로 하였다. 가는 길에 臨洛關을 지나다가 옛 친구 宋憲副 公을 만났더니 이르되 “어제 한 꿈을 꾸었는데 한 眞人이 우리 집에 이르러서 서로 말하다가 작별하였더니, 지금 옛 친구가 서로 돌아다보게 하니 집안 전체가 매우 기뻐하도다. 작년에 長子가 瘡疾에 걸렸더니 근래에는 과거시험에 떨어져서 억울함으로 인하여 그 병이 점점 더하여 모든 약이 효과가 없으니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답하여 가로되 “즉각 可히 나올 수 있다.”고 하니, 公이 놀라서 가로되 “그렇게 된다면 ‘내 아들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老母께서도 또한 편안해 한다’고 할 수 있도다. 이 公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노모를 봉양하기를 극진히 하고) 자신을 봉양하기를 지극히 薄하게 하니 神明이 감동하여 불렀을 것이다. 내가 곧장 章門 等の 穴에 침을 놓으니 飲食을 점차 먹을 수 있고 形體가 상쾌하며 腹塊가 곧 사라졌다. 즐거워하기를 며칠 흡족하였다가 친구가 동행하여 呂祖度 盧生祠까지 배웅하여 차마 헤어지지 못하다가 작별하였다.

【考察】

이는 과거의 낙방으로 瘡症이 생겨서 腹中에 積塊가 생긴 것을 치료한 醫案이다.

친구의 長子가 낙방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세가 깊어진 瘡症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단지 腹塊가 존재하는 증상을 치료했다.

『景岳全書』에서 張介賓은 瘡證의 症狀과 치료에 대해서 “그 症은 脹이 없고 悶도 없이 단지 배고픔을 알지 못하고 먹고 싶지도 않을 뿐이다. 가슴과 배의 脹과 痞를 물으면 역시 약간 그런 정도라고 하거나 그리 심하게 脹滿하지 않다고도 대답한다. 이는 본래 脹은 아닌데 단지 먹고 싶지 않다는 것 때문에 脹을 의심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이런 증은 매우 많은데 먹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알아채지 못하여 함부로 깎아 내리는 약을 써서 胃氣가 날로 손상되면 여러 가지 변증이 생긴다. 치료는 濫補하여 脾胃의 기운이 강해지면 痞滿이 열리면서 음식이 저절로 내려가고 元氣는 자연히 회복된다.”⁵⁸⁾라고 하였다.

58)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p.1068-1069. “其證則無脹無悶, 但不知飢.”

『景岳全書』에서 보는 바와 같이 藥을 복용해도 好轉을 보이지 않으며 낙방에 의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虛寒의 痞를 實證으로 잘못 판단해서 寒涼한 藥을 투여하여 脾氣가 거듭 손상된 것⁵⁹⁾으로 판단된다.

『景岳全書』에서는 “虛邪의 치료는 緩治하는데 脾胃를 전적으로 배양하여 本을 굳게 만들고 간혹 뜸이나 膏로 經脈을 소통시켜 主氣가 날로 강해지고 經氣가 소통되면 積痞는 저절로 없어진다.”⁶⁰⁾고 하였으니, 상기 醫案에서도 虛邪 치료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章門穴로 痞塊症을 치료하는 것은 【原文-3】에도 나타나 있다.

IV. 結論

『鍼灸大成』의 醫案 중 痢疾, 癩疾 등의 10按을 분석함으로써 楊繼洲의 鍼灸治療의 특징을 살펴본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으로 침과 뜸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楊繼洲는 痢疾, 痞塊 등에 침과 뜸을 동시에 사용되되 주로 침을 먼저 사용하였다.

2. 癩疾, 肩臂痛 등에 經脈辨證을 이용하여 肺俞, 心俞, 氣海 등을 選穴하여 施術함으로써 五臟六腑의 근본을 치료하였는데, 이는 疾病 치료에 초점을 맞춘

亦不欲食。問其胸腹脹痞，則曰亦覺有些，而又日不甚脹。蓋本非脹也，止因不欲食而自疑爲脹耳…(中略)…此證極多，不得因其不食，妄用消耗，將至胃氣日損，則變證百出矣。治宜溫補，但使脾胃氣強，則痞滿開而飲食自進，元氣自復矣。”

59)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068. “虛寒之痞，凡過於憂思，或過於勞倦，或饑飽失時，或病後脾氣未醒，或脾胃素弱之人，而妄用寒涼剋伐之劑，以致重傷脾氣者，皆能有之。”

6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1056. “凡治虛邪者，當從緩治，只宜專培脾胃以固其本，或灸或膏，以疏其經，但使主氣日強，經氣日通，則積痞自消。”

雜病穴法의 시술과 매우 다르다.

3. 뜸뜨는 회수나 禁灸 여부에 대해서 오로지 『明堂經』의 내용을 따르기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변화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4. 靈龜八法의 開闢法을 心癩의 치료에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5. 腰痛을 치료함에 있어서 鍼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손가락으로 대신함으로써 기존의 치료도구에 구애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鍼灸大成』醫案을 辨證, 選穴, 施術方法, 醫論 등으로 分析함으로써 鍼灸治療의 실제에 활용하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鍼灸醫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논문>

1. 김태희, 박영배. 醫案의 객관적 이해 방법에 대한 고찰(1).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0. 4(1). p.52.
2. 羅慶燦, 朴炫局. 黃帝內經의 脈 理論과 診脈法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 2(1) p.80.
3. 맹용재. 鍼灸大成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4. 이수홍, 윤종화, 김갑성. 『鍼灸大成』策篇의 분석을 통한 양계주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7(2). 2000. p.70, 71.

<단행본>

1. 成無己. 仲景全書·傷寒論注·辨脈法.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3.
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 p.258, 297, 322, 352, 357, 404, 405, 421, 430, 432. pp.453-454.
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2003. p.38, 59, 60, 77, 78, 80, 81, 172, 258, 276, 291, 293, 314, 332, 365.
 4.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989, 995, 997, 1000, 1056, 1057, 1060, 1113, 1122, 1124, 1548 2388. pp.1068-1069.
 5. 全國韓醫科大學校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1988. p.1137.
 6. 田從豁, 余茂基, 臧俊岐, 劉保延 編著. 古代鍼灸醫案釋按. 上海中醫藥大學出版. 上海. 1997. p.77, 135.
 7. 黃龍祥 著. 박현국, 윤중화, 김기옥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人文化社. 2005. p.986, 1111.